

23 요한복음: 예수님 때문에 사람들은 둘로 갈라진다

성경말씀: 요6:52-71

요한복음 강해를 통해 발견하는 것: 사람들의 영적인 무지, 보이는 것, 빵에만 관심이 있다(기복, 변영복음 추구).

하나님 그분 자신이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데도 깨닫지 못한다. 세상의 경험, 학식, 전통이 소용없다.

심지어 니고데모 같은 사람도 동일하다.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누구나 영적 무지와 어둠 속에 있다. 지난 주, 군중들이 물려와 빵을 달라고 한다.

예수님: 썩어 없어지는 양식을 위해 수고하지 말고 영존하는 것에 이르는 양식(27)

내가 그것을 준다, 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29)

군중들: 당신이 참 대언자라면 하늘에서 왔음을 보여 주는 표적을 보여 주소서(30).

1500년 전에 모세는 광야에서 백성에게 만나를 주었습니다(31).

예수님의 대답: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다(32). 하나님의 빵은 하늘에서 내려와 세상에 빵을 주는 자이다(33).

과거에 모세가 준 것은 썩어 없어지는 양식이다. 그것은 메시아가 행할 위대한 일의 예표로 주어졌다.

그것을 먹어도 다 죽었다. 시대가 바뀌었다. 은혜를 대체하는 은혜가 왔다(요1:16).

나는 하늘에서 온 살아 있는 빵이다. 나를 믿고 나를 먹는 자는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35). 믿는 자를 일으킨다(39)

군중들의 반응: 저 사람은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어떻게 하늘에서 왔다고 하느냐?(42)

영적으로 눈이 뜨이지 않은 자들과 예수님의 대화가 이어진다. 그리고 결국은 그들의 다수는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그분을 버리고 떠난다. 오늘 < >, 예수님 편에 있는 사람들, 떠나는 사람들 어떤 사람이 주님을 따를 수 있는가?

예수님의 폭탄선언: 그 빵은 곧 내 살이다(51).

내가 주려는 빵은 세상의 생명을 위해 내가 주려고 하는 내 살이다(51).

6장에는 살이라는 말이 총 7번 더 나온다(51-56까지).

이 말은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세상의 생명을 위해 자신을 희생물로 주실 것을 뜻함

요한복음의 주제 중 하나: 대신 속죄, 기독교의 핵심 교리, 엡2:1, 모두가 죽어 있다. 사람의 힘으로

구원 불가능, 누군가가 대신 해 주어야 한다. 죄 값을 치르고 형벌을 받고 특히 피를 흘리고 죽어야 한다. 구약 시대 수많은 짐승들의 죽음, 그러나 염소와 황소의 피가 죄를 제거 불가능(히10:4)

완전한 희생 예물 필요: 죄가 없는 완전한 분의 죽음 필요(고후5:17)

그분이 바로 예수님, 대신 속죄, 단 한 번에 영원한 속죄

예수님은 세상을 위해(3:16; 6:51), 자신의 양들을 위해(10:11, 15), 자신의 민족을 위해(11:50-52), 자기 친구들을 위해(15:12) 대신 죽으신다.

군중들의 논쟁(52-59)

군중들의 반응(52), 어떻게 자기 살을 주느냐? 율법에 따라 불가능함, 피도 먹으면 안 됨

군중들의 실수: 영적인 말씀을 물리적인 것으로 오해함

53절 예수님의 설명: 너희가 빵과 물을 마시면 그것이 몸속에 들어가 몸의 일부가 되고 생명을 유지하듯이 너희가 너희 속으로 나를 받아들이면 내가 너희에게 생명을 준다.

53절은 주의 만찬 이야기가 아니다. 주의 만찬은 십자가 처형 전에 있던 일, 이것과 아무 상관이 없다.

63절에서 명확하게 하심, 지금 나는 진짜 살과 피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나는 양들의 문이다. 진짜 문 아니다. 나는 빛이다. 진짜 빛 아니다. 나는 포도나무다. 진짜 나무 아니다.

요한복음에는 이런 상징들이 들어 있고 또 주님은 필요한 경우 스스로 해석해 주신다.

우리가 해야 할 일(54), 그분의 살과 그분의 피를 먹고 마셔야 한다.

이것은 그분을 받아들이는 것, 그러면 부활된다, .

그 효과(55-56),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일한다(엡2:8-10).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행위가

나온다. 선한 생명이 들어가서 선한 일을 한다.
어디에서 일어났는가? 가버나움 회당에서(59)

군중들의 반응(60)

백성의 반응(60): 어렵다. 들을 수가 없다 깨닫지 못하겠다. 고전2:14

주님의 말씀의 특징: 사실 이해하기에 어렵지 않다. 이해한 뒤 그것을 받아들이기가 어렵다.
그분의 가르침은 두 측면에서 그들에게 장애물이 되었다.

1.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왔다. 나는 신성의 존재이다(요셉의 아들...).
2. 너희가 구원받으려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한다(그분을 받아들여야 한다).

그들은 이 두 가지에 결려 넘어졌다. 이유: 전통, 영적 무지, 자기 의(롬10:2-3).

이에 대한 주님의 말씀: 너희가 이 두 가지로 인해 결려 넘어졌다면 내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보면 어떻게 하려느냐?(62), 실제로 예수님은 부활하신 뒤 40일이 지나자 올리브 산에서 승천하심
주님의 설명(63): 너희더러 진짜 내 살과 피를 먹으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다. 말씀이 영이다. 말씀이 살린다. 내 말이 살린다.

육은 아무 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한다. 과거의 만나가 그런 것이다, 다 먹고 죽었다.

그것은 예표에 불과하다. 예표를 따르지 말라. 실체인 내가 왔다.

과거의 모세, 엘리야 다 훌륭하다. 그러나 그들은 육에 속한 자들, 나에게 대해 증언하였을 뿐이다.

그들 자신이 우리에게 유익을 주지 못한다. 실체인 내가 왔다.

아무리 진짜 살을 먹고 피를 마셔도 구원받지 못한다. 천주교는 여기서 화체설을 차용한다.

천주교의 미사: 사제의 기도로 빵과 포도주가 예수님의 실제 살과 피로 바뀐다. 불가능, 이런 빵
마우리 먹어도 구원과 무관함

그래서 그것들을 먹음으로써 다시 희생 제사를 드린다. 예수님의 단번 속죄 무시

성경의 판단: 살 즉 육신 안에는 선한 것, 좋은 것이 전혀 없다(롬7:18).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을 신뢰하지 않는다(빌3:3).

그러면 어떻게 살과 피를 먹을 수 있을까?(63)

말씀을 통해서 가능하다(63).

어떻게: 말씀이신 분이 말씀들을 하시니까. 요1:1, 1:14,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그래서 내 말을 듣고 나를 믿는 자는 영존하는 생명을 갖는다(요5:24).

이것은 이미 렘31:31-34에 예언되어 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자신 안에 받아들여야 한다.

진리의 선포 이후 군중들이 떠난다(64)

너희 중에 믿지 않는 자들이 있다(64). 너희는 누구인가? 그분의 제자들(66)

제자는 스승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따르겠다고 하며 몸으로 체득하는 사람
12제자 외에 이미 제자들이 많이 있었다(표면적으로).

그중의 많은 사람들이 떠나고 다시는 함께 다니지 않음(66).

다시 옛 생활로, 육신의 길로, 옛 종교로

이들은 어떤 사람들인가?(65절), 아버지께서 내게 오게 하지 아니하신 자들, 예정이 아니다.

45절, 말씀이 주어지고 강해될 때 전혀 깨닫지 못하는 사람, 받아들여려 하지 않는 사람
그러므로 기독교의 구원은 시작부터 끝까지 성경 말씀에 달려 있다.

물론 하나님이 하신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직 자신의 말씀을 통해서만 일하신다.

1. 말씀이 육신이 되신다. 2. 아버지가 말씀을 보내신다.

3. 성령님이 그 말씀을 이해하게 하신다(요14:26).

그러므로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들이 있어야 한다(마4:4).

반드시 말씀들이 보존되어야 한다(시12:6, 마24:35).

지금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보존해 주신 성경이 있다. 우리는 영어 킹제임스 성경: 하나님이 그분 자신의

모든 말씀들을 세계 공통어인 영어로 보존해 주신 성경이라고 믿는다. 믿는다 주관적이다.
동시에 개관적인 데이터가 차고 넘친다.
이 안에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들어 있다.

진리의 배타성

예수님만 길이다(요14:6). 그 길로 다녀야 영생을 얻는다. 그런데 진리가 선포되자 자기 마음에 안 맞는다고 그 길을 버리고 떠나는 사람들이 많다.

기독교의 배타성: 예수님만이 진리, 진리는 배타적이다. 그분만이 진리면 다른 것은 비진리다. 이것이 진리의 특성: 이것저것 다 진리가 될 수 없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 가능, 왜, 그분은 하나님이시므로, 그분은 하나님의 어린양, 완전한 희생 예물이들이 이렇게 떠나도 주님은 전혀 놀라지 않는다. 사람이 어떤 존재인가를 아시기 때문에.

진리에 서는 사람들, 진리를 대적하는 사람들

예수님의 질문(67)

12제자들의 반응(68-69)

베드로와 11제자들: 예수님의 신성, 예수님이 말씀, 그분의 살과 피를 먹는 것의 의미를 알고 있다, 결론: 그분의 말씀들이 있는데 어디를 가느냐?(68)

참된 성도들의 고백(69), 마16:16 등 요10:36, 19:7, 20:31 등)

이런 고백자들 가운데는 심지어 유다도 포함되어 있었다.

그러나 주님은 그의 고백이 참되지 않음을 이미 알고 계셨다(70-71).

사람의 속 중심을 알 수 있는 유일한 분: 하나님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신성을 다시 보게 된다.

결론

요한복음 6장: 예수님은 하나님이다. 오병이어 기적, 물 위를 걷는 기적

그분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빵, 그분을 받아들여야 구원 가능

많은 경우 대중의 동기는 순수하지 않다. 대개 주님의 병 고침, 사람을 살리는 일에만 관심을 갖는다.

로마 제국, 바빌론 제국 등 고대 제국들의 특징: 빵과 서커스를 국민에게 제공함

그러면 백성은 기뻐하고 순응함, 현 시대도 이와 비슷하다. 특별히 사회주의 전체주의 국가 수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따라다녔다. 인기가 많았다. 그런데 그분을 구원자요,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은 많이 없었다.

지금도 마찬가지이다. 예수님 이름을 걸고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을 살펴보라. 혹시 그들은 병 고침, 번영, 인생의 자랑 등을 위해 모인 것은 아닌가?

그리스도교의 가장 큰 특징: 주님 때문에 고난을 받고 그 고난 가운데서도 기뻐하며 사는 것

지금 이 시대: 적그리스도의 때가 가까이 오고 있다. 국민들의 무지로 국가의 대혼란

국가를 잃어지고 나가는 한 분에게 문자, 국가가 부여한 책무가 아무리 커도 낙심하지 말고 영육이 강건한 가운데 잘 이끌고 나가시라.

그분의 문자: 감사합니다. 제가 옳은 길, 좁은 길을 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모두 말씀대로 옳은 길, 좁은 길을 가기 위해 기도하고 애를 써야 한다.

우리 주님께서 선하게 인도해 주시리라 믿는다.